

2023 새해 이렇게

강진원 강진군수

“해양레저 거점 조성...인구·일자리 늘려 新강진 건설”



강진만 일원 해양 리조트 조성·세계도자기엑스포 유치 총력 전국 최고 육아수당 지급·스마트 팜 조성·참쌀 특화작목 조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 온 주민들과 함께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新)강진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새해 인터뷰에서 “지난해 군민, 공직자들과 고민과 논의를 거듭한 끝에 강진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인 5대 분야 60대 프로젝트를 도출했고, 올해는 이를 실천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군정 주요 목표인 ▲인구증가로 강진 희망 만들기 ▲융복합산업으로 고소득 강진 만들기 ▲관광객 500만 유치로 관광 강진 만들기 ▲투자유치로 남해안 거점 도시 만들기 ▲건강하고 행복한 강진 만들기를 반드시 완성시켜 강진 발전의 주춧돌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강 군수는 새해 첫날, 그동안 의례적으로 행해 오던 시무식 대신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유치 달성을 위한 2023년 군민 다짐대회’를 가졌다. 강 군수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게 국·도비 확보

와 민간투자 유치는 지역 발전의 명운이 걸린 과제라며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강진의 기적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먼저 강진-마량 간 포도 23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제6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공사는 조기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강진만 일원에는 최고급 해양 리조트와 제2 골프장을 민자 유치해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와 인구 늘리기의 주요 해법으로는 푸소 시즌 2와 함께 빈집 1000세대 정비, 전원주택 1000세대 조성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지급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강진군 육아수당은 자녀 수와 소득에 상관없이 만 7세 미만까지 1인당 매달 60만원(총 504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민선 8기 강진군의 새해 첫 축제인 청자축제를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강진의 대표 축제인 ‘강진 청자축제’가 겨울로 개최 시기를 옮겨,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 유치를 위한 고베도 단단히 쥐고 있다. 강진군 등 전남 서부권 4개 시·군은 오는 8월 전남도에 엑스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남도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전남도, 강진군,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고, 도 자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강진 전체 산업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도 빼놓지 않았다. 강 군수는 “농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먹거리 주권을 찾기 위해서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의 농어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 생산 비용은 낮추되 품질은 높여, 흔들리지 않는 농업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진 참쌀을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는 한편, 쌀귀리·옻천 토하 특구 지정, 스마

트 팜 조성 확대, 강진 명품 한우 브랜드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다.

관광객 500만 명 유치 관련 ‘A로의 초대·Again 남도답사 1번지 강진’ 프로젝트를 통해 강진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강진만을 해양레저 관광거점 단지로 조성하고, 하늘 자전거길과 레일바이크 설치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병영 ‘불금불파’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수국 축제 등 MZ세대를 위한 새로운 축제 콘텐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마라탕 일원에도 바다낚시 어선 20대와 생활 낚시 인구역 5만명을 유치해, 새로운 레저휴양지구로 키워가고, 강진의 시크릿 거든인 750ha 규모의 칠량 초당림 관광 명소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끝으로 강진원 강진군수는 “군민과 향우, 그리고 전 공직자와 함께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 건설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경찰, 소외이웃과 ‘나눔의 설’



10세대에 선물세트·제수용품

장성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2일 북한이 탈주민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10여세대에 3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을 전달하는 등 위문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장성경찰서 안보지원협의회(협의회장 김용태)에서 분단과 다문화 등 현실에서 고향을 찾지 못해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 따뜻한 사랑의 정을 나누고 위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날 설 선물을 전달받은 탈북 주민 우모씨는

“북한에 고향을 둔 우리 탈북민들로서는 명절이 제일 외로운 날이다. 이렇게 위로와 선물까지 챙겨주어 올해는 풍성한 설날을 맞게 되었다”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임지환 장성경찰서장은 “우리에게 즐거운 설날이지만 탈북민들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게는 외로운 명절일 것이다. 앞으로도 장성경찰과 안보지원협의회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착지원과 보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 대표 맛집’ 도전하세요

시, ‘나주밥상 브랜드화’ 사업 ... 2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나주시는 ‘나주밥상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할 대표 맛집 업소를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대로 지역에 이어져온 향토 음식 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나주만의 맛과 멋이 담긴 먹거리 관광 명소화를 추진, 지역 상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약사업으로 발굴했다.

대표 맛집 신청 대상(업체)은 공고일 기준(1월 6일) 나주시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외식업체다.

20일까지 QR코드(사진) 인식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단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미경과’, ‘영업정지 처

분이나 1개월 이상 휴업’,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 등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 ‘식품위생등급제·모범음식점·안심식당·남도음식명가·지정음식점 등 지정취소 후 2년 미경과’,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등에 해당되는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신청 누리집 공고문·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표 맛집으로 선정되면 대표 맛집 ‘지정증’과 지정패’가 교부되며 나주밥상 지원 사업 신청자격이 부여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화순 군민 건강증진 수영 프로그램 다양

화순군이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에서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아쿠아로빅 수중운동은 경쾌한 음악에 맞춰 물의 저항과 부력을 이용해 걷기, 비틀기, 차기 등을 하는 볼속 종합체조로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진행되며 관절에 부하 없이 근육운동을 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에서는 우수한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춘 수영강습 프로그램과 어린이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으로 기초반부터 고급반까지 자신의 실력에 적합한 반을 선택해 강습을 진행할 수 있다. 수영강습반 수강신청은 매일 25일부터 말일까지

지로 수영장 안내데스크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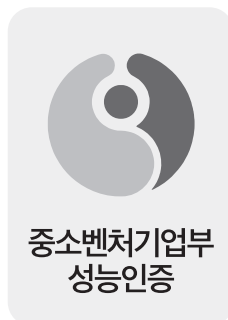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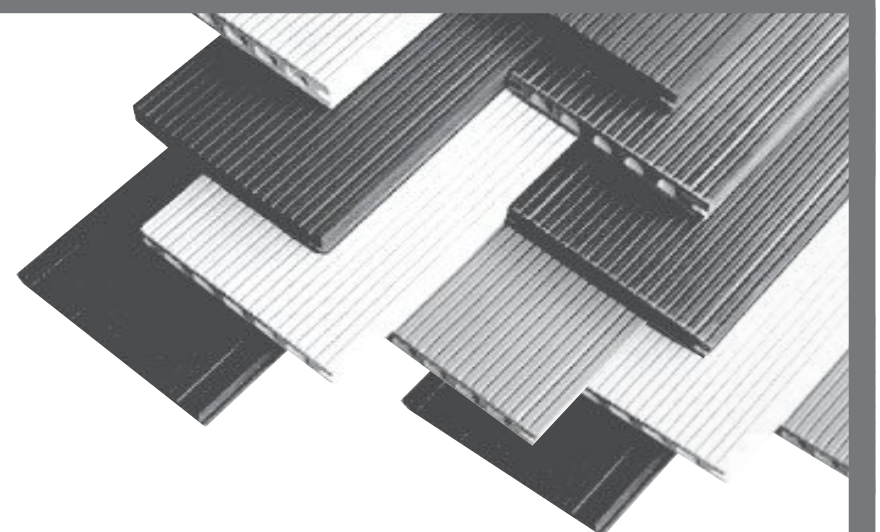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